



■ 연구원 주요일정

- 05월 22일(月) : 주간회의
- 05월 24일(水) : 연구원 야간강좌
- 05월 26일(金) : "간신" 북 콘서트

■ 연구원 소식

○ 김천식 박사 - 종교문화유산답사(5월 20일)

- 날짜 : 2017.05.20(土) 9시 ~ 14시
- 장소 : 선교사 묘역, 구 예수병원, 서문교회, 한벽루
- 내용 : 지난 4월 22일에 진행된 1차 종교문화유산답사에 이어 2차 답사가 5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하여 선교사 묘역, 구 예수병원, 서문교회, 한벽루를 도보로 답사하였습니다. 오전내내 이어진 답사를 마친 후에 한벽루에 모여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누며 방문했던 곳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 답사 때도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오항녕, 오창익 북 토크 <<간신>>

★ 일 시 : 2017.05.26(金) 저녁 7시

★ 장 소 :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513호

- 내용 : 우리 연구원 오항녕 평의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과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공동으로 저술한 <간신- 그들은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가>를 가지고, 이야기판을 벌입니다. 한 시간 남짓 북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에게 저자 친필 서명이 들어간 <간신>을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 **박해성 회원 차녀 혼인**

: 우리 연구원 박해성 회원의 차녀 박민하 씨가 혼인합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능하신 회원께서는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7. 06. 10(土) 오후 3시
- 장소 : 웨스턴베니비스 아스타홀(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7층)
- 지하철 : 1호선, 2호선 신도림역 하차 2번, 3번 출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안내**

- 기 간 :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2호
- 진 행 :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교 재 : 『호남의사열전』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용인에 살고 계시는 “이동균” 님과 “진성호” 님 입니다. 지난 13일 “天命” 단체 관람과 숙박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통해 더욱 자주 모시겠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함께하는 베트남 평화기행

■ **여행명:**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역사와 치유를 위한 베트남 평화기행

■ **성 격:** 역사·문화·평화 기행

■ **지 역:**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 꽝남성, 호이안

■ **여행기간:** 2017년 08월 20일(일) 오전 10시 ~ 2017년 08월 26일(토) 오전 7시 / 06박 07일

■ **여행경비**

1) 항공료 (TAX, 유류할증료 포함)

해외 : 인천↔호치민 / 베트남 국내 : 호치민↔다낭

* 기준 항공가 44만원. 실제 항공 요금이 44만원 이상일 경우 여행 경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44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을 반납해 드립니다.

2) 현지 교통비 (전용차량, 도서간 이동편)

전용차량: 전세버스 35/45인승

3) 전 일정 숙박

3·4성급 호텔 (2인 1실) 5박

4) 전 일정 식대: 1끼 식대 평균 가격 8\$ 이상

5) 투어비

호찌민시 시내 산책 / 반레 시인과의 만남 / 전쟁박물관 탐방 / 구찌땅굴 탐방/
고엽제 피해자들과의 교류 / 남부여성박물관 탐방 / 빈호아사 한국군 증오비 참배/
빈호아 초등학교 방문 및 장학금 전달식 / 빈호아 학살 생존자 도안응이아와의 만남/
탄타오 시인과의 만남 / 밀라이 박물관 탐방 / 하미 위령비 참배 / 하미 학살 피해자
고(故) 팜티호아 할머니 조문 / 풍니 위령비 참배 / 풍니 학살 생존자 탄 아주머니와의
만남 / 후에 궁중악 가족연주단 <사절악>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6) 현지 가이드 및 운전기사 숙식비, TIP

7) <한베평화재단> 오퍼레이팅비

가이드 1일 200\$ 외 통역비, 프로그램 기획 및 오퍼레이팅비

8) <한베평화재단> 길벗 여행경비(항공료, 숙식비, 교통비, 투어비)

9) 인민위원회 허가 수속비

10) 지원비: 생존자 지원비, 여행지역 지원비

11) 선물비

12) 해외여행자보험

* 신청기한은 5월 26일까지이며, 총비용은 참석인원수에 따라 유동적이거나 160~18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春望(춘망)

봄날에 멀리 바라보다가

國破山河在(국파산하재)	도성을 깨졌어도 산하는 상기 남아
城春草木深(성춘초목심)	성안에 봄이 들어 초목은 깊었나니,
感時花濺淚(감시화천루)	시절이 소란해서 꽃을 봐도 눈물 나고
恨別鳥驚心(한별조경심)	이별이 한스러워 새소리에 놀라는 가슴.
烽火連三月(봉화련삼월)	타오르는 봉화가 석달이나 이어지니
家書抵萬金(가서저만금)	집에서 오는 편지가 만금처럼 소중하고,
白頭搔更短(백두소갱단)	하얗게 센 머리는 빗을수록 짧아져
渾欲不勝簪(혼욕불승잠)	이제는 비녀조차 지를 수가 없구려.

■ 작자소개

- 두보(杜甫; 712~770).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자(字)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 안사(安史)의 난으로 사방을 유랑하다가, 장강의 배 위에서 숨을 거뒀다. 이백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의 시는 이백과 달리 웅혼하면서도 침통하여 사실주의 문학의 백미로 손꼽힌다. '시성(詩聖)'으로 불린다.

■ 감 상

- 봄은 누구에게나 꿈과 희망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시를 지은 두보에게는 암울하고도 가슴 아픈 계절로 봄이 찾아왔다. 공간적인 배경마저 폐허로 남은 수도 장안(長安)의 성터이다. 반란군의 분탕질로 황폐해져 스산하기가 그지없는 장소이다.

야속하리만치 덧없는 절기의 변화이다. 국난(國難)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은 시나브로 찾아들었다. 무너진 성터에는 초목만이 질푸름으로 깊어졌다. 그 사이로 비집고 나온 꽃 한 떨기를 보고 두보의 눈물이 주룩룩 흘러내린다.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 현실이기에, 꽃이 아름답다는 느낌보다 비애가 선뜻 앞서는 것일까? 가족과의 이별이 얼마나 서럽기에, 짝을 부르는 봄날의 고운 새소리에 깜짝 놀라는 심정일까? 두보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한 봄이 결코 아니다.

■ 역사속의 오늘

○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만세 - 1989년 5월 28일

1960년 4월 혁명 이후 2만 여명에 이르는 전국의 교사들이 교원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을 결성하고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그 꿈이 '5·16혁명재판부'에 의해 용공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노조 간부들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산산이 깨어진 이후,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진보적인 교사들은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고, 교육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육자치제실현',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전면 보장', '비교육적 잡무와 강요된 보충 심야학습 철폐',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등 5개 요구를 제시하였다.

이듬해 6월 민주 항쟁의 기운을 이어받아 1987년 9월 27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사 조직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전교협은 '교육민주화실현'과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 등 학교민주화투쟁, 그리고 교육악법 개정투쟁에 앞장선다. 전교협은 사학비리 척결운동, 촌지 없애기 운동 등을 전개하며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되었으며, 1989년 2월 19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건설을 결의하고, 3달 뒤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결성식을 연세대 도서관 앞에서 갖고 선언문을 통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결성식 장소였던 한양대와 건국대가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연세대로 결성식 장소를 변경해야 했다.

전교조가 결성되자 노태우 정권은 107명의 교사를 구속시키고 1527명에 이르는 교사를 학교 밖으로 몰아냈다. 하지만 정권의 전면적인 탄압에도 참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으며, 전교조는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실천 활동에 앞장서면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갔다. 그 결과 전교조는 국민과 교사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교육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전교조가 굳건히 자리 잡자 김영삼 정권은 93년 합법화 대신 '조건부 복직 방침'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가 교육개혁을 실천하고, 전교조 합법화를 앞당기기 위해 복직하겠다'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후 지부장 등 조직 간부를 제외하고 모두 일괄복직 하게 된다.

해직교사들의 복직 이후 전교조는 참교육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물론 새로 결성되는 민주노총에 참여하는 등 민중과 연대 폭을 넓히면서 교육개혁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

김대중 정권은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서 제정된다. 10년 넘게 벌여온 전교조의 합법화투쟁이 드디어 승리한 것이다. 합법노조 준비위로 전환한 전교조는 법 발효일인 1999년 7월 1일 노동조합으로 등록,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1999년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참교육실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산적해있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벌여왔다. 매년 1월 연구실천한 결과들을 모아 발표하는 '참교육실천보고대회' 를 갖고 있으며, 연수와 자료를 통해 교사들에게 다양한 참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잘못된 교육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한 대국회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그 결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부패사학을 양성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장애인교육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남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경쟁과 통제 위주의 정부 교육정책에 맞서 협력과 자율을 존중하는 교육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무평정·교원평가 등 통제 위주의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B정부 이후 정부당국은 전교조에 대한 이념적 공세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박근혜 정권은 해고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전교조에게 2013년 10월 24일 '노조아님' 통보를 내렸다. 1999년 이전과 같이 다시 법외 노조의 길을 걷고 있는 전교조는 2016년 노조전임자 미복귀 투쟁으로 인해 다시 30여명의 해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눈보라 속에서 봄을 준비하듯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전교조는 미래세대를 위한 내일을 준비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이어진 촛불항쟁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했고 정권교체 이후 법내 노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는 5월 28일은 전교조의 창립기념일이다. 엄혹했던 시기 "전교조", "참교육" 이라는 글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의 희생이 2017년 우리가 만난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28년 전 학교에서 쫓겨난 뒤 '해직'이라는 이름이 먼저 붙어 있던 교사들은 양말을 팔고 굴비를 팔며 궁색한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이 와야 된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고 쫓겨난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이유로 학교 밖으로 쫓겨나가거나 서러움에 숨을 놓은 아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을 만든 것이다.

사반세기를 훌쩍 넘긴 오늘 전교조는 청년에서 장년이 되었다. 2017년 한국사회에 드리워진 공교육 사망선고 앞에 그리 유력한 대안을 만들고 있지 못한 것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젊고 건강한 새로운 조직원들이 함께 해야 하지만 바람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전교조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효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이유가 선명한 조직이다.

‘전교조 합법화와 동인고등학교 분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1999년 8월, 부산 동인고등학교에 신규교사 채용 면접을 보러온 나의 눈에 들어왔던 교문 위 현수막이 생각난다. 그 날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평범한 교사인 필자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28번째 생일에 축하대신 질책을 던지셔도 좋다. 다만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오늘에 전교조가 함께하고 있음을...



이번 호 “역사 속의 오늘”을 쓴 박상형 회원은 동인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이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회에서 교섭국장으로 활동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역사 속의 오늘”에 회원들의 좋은 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